

‘KS 사나이’ 나지완 가을전설에 도전

부상 2달 공백 불구 17개 홈런 팀 공동 1위
 “어떤 상대 만나더라도 좋은 기억 만들겠다”

한국시리즈 사나이 나지완이 또 다른 가을 전설에 도전한다.
 2011시즌 KIA 타이거즈의 부상 악몽의 시작은 나지완이었다. 개막이후 11경기에 나와 0.379의 타율로 8타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했던 나지완은 4월 1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왼쪽 비골 골절을 당하며 수술대에 올랐다.
 이후 KIA는 주전들의 출부상 속에 무기력한 행보를 하며 플레이오프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부상 병동의 시발점이 됐지만 나지완은 KIA의 멀어져가는 한국시리즈 우승의 꿈을 살릴 ‘가을 사나이’로 주목받고 있다.
 나지완은 부상으로 인한 두 달 가량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82경기에 출전해 17개의 홈런으로 62타점을 만들었다.
 홈런은 100경기에서 17호포를 쏘아올린 이범호와 팀내 공동 1위이자 전체 7위이고 타점은 이범호(77)·김상현(63)에 이어 팀내 3위다.
 특히 후반이 들어 11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특급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24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도 결승타를 비롯해 무등경기장 전광판을 강타한 대형 솔로포를 쏘아 올리며 유석민에게 17승을 선물했다.
 나지완은 “타격감도 좋고 시즌 출발이 좋았

는데 부상을 당해 두 달간의 공백이 있었다. 재활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올 시즌 목표를 15홈런과 60타점으로 재설정했는데 그 목표는 달성했다”며 “최근 밸런스가 좋지 않았는데 밸런스가 잡았다. 순위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모르겠지만 시즌 마지막까지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엇이든 ‘한방’과 함께 심리적인 안정이 나지완의 가을전설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다. 대졸 4년차인 26살의 나지완은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눈앞에 닥친 군문제를 고민했었다.
 나지완은 “나이가 있고 고민이 됐다. 올 시즌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다 보이지 못했다. 내년 시즌 미련이 남지 않을 만큼 활약을 하고 군 복무를 하기로 결정해 마음이 홀가분하다”며 “아직 팀의 가을야구가 끝나지 않은 만큼 개인보다는 팀을 생각하면서 가을 사나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을잔치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 팬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나지완은 2009년 7차전까지 갔던 한국시리즈 대결부에서 SK 재봉용을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날리며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를 썼다.
 2009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은 “그 홈런이 나지완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지만 자만심을 부른 적이 되기도 했다. 올 시즌 신인의 자세로 준비했지만 부상 등으로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며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다시 한번 좋은 기억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포스트 시즌 10월 8일 개막 한국시리즈 10월 24일 열려

KBO 일정 확정

2011시즌의 챔피언을 가리는 프로야구 가을잔치가 내달 8일 성대한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8일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내달 8일 페넨트레이스 3-4위 팀간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포스트 시즌의 승자는 늦어도 11월1일 결정된다.
 준플레이오프는 5전3선승제로 치러지며 3위팀 구장에서 10월 8-9일 경기를 갖은 뒤 10일 휴식일 이후 11-12일 다시 승부를 벌인다. 4차전까지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14일 3위팀 구장에서 마지막 5차전을 벌인다.
 2위팀과 준플레이오프 승자가 벌이는 플레이오프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정이 잡혔다. 준플레이오프와 마찬가지로 5전3선승제로 진행되며 역시 2위팀 구장에서 먼저 1-2차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망의 한국시리즈는 10월24일, 페넨트레

이스 1위팀 삼성의 안방에서 시작된다.
 7전4선승제로 2011시즌 한국 프로야구 우승팀을 가리게 되며 7차전까지 승부가 이어진다면 11월1일 잠실구장에서 챔피언이 결정된다.
 대구에서 한국시리즈 1-2차전이 열리고, 3-4차전은 플레이오프 승자팀의 홈구장에서 펼쳐진다. 5-6-7차전의 무대는 잠실구장이 된다.
 만약 우천 등으로 페넨트레이스와 포스트 시즌 경기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페넨트레이스 종료일과 포스트시즌 경기개시일 사이에 최소 1일의 이동일을 두어 재편성 한다.
 포스트시즌과 관계없는 팀의 경기가 우천 연기 될 경우에는 예정대로 포스트시즌 경기가 진행된다.
 포스트시즌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 다음날로 순연되고,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한국시리즈 사이 최소 하루는 이동일로 지정된다.
 포스트시즌 경기개시시간 및 중계일정, 입장권 예매처는 추후에 발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노지심’ 장채근 흥익대 감독 됐다

3년만에 현장 복귀

‘노지심’ 장채근(47)이 흥익대 감독으로 현장에 복귀했다.
 장채근 전 KIA 수석코치가 27일 흥익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임 사령탑에 취임했다. 지난 2008년 하이로즈 배터리 코치를 지낸 이후 3년만의 현장 복귀다.
 1986년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해태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장 감독은 1988·1991·1992년 포수 부문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며 타이거즈 안방마님으로 만집 활약을 했다.
 1995년 쌍방울에서 은퇴를 한 뒤 1996년 KIA 배터리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장 감독은 2005년까지 KIA 수석 코치와 2군 감독으로 활동했다.



2008년 이후에는 덕수고와 고려대 등에서 인스트럭터로 야구 후배들을 지도했고 최근에는 (주)중원스틸 이사를 지냈다.

장 신임감독은 “4월부터 정식으로 팀을 지도하게 된다”며 “프로에서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야마 무대에 도전하게 됐다. 프로에서의 경험을 살려 좋은 선수를 길러내고 흥익대를 명문팀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3번째 우승 도전

신한동해오픈, 존하·강성훈과 1라운드

최경주(41·SK텔레콤)가 한국프로골프투어(KGT) 제27회 신한동해오픈 대회에서 존 하(21·한국인삼공사),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과 1라운드에서 맞붙는다.
 28일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최경주는 29일 오전 8시12분 1번홀에서 짝난 우승자인 재미교포 존 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인 강성훈과 1라운드를 시작한다.

올 시즌 2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1위를 달리는 홍순상(30·SK텔레콤)은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 초창 선수 풀 캐시(잉글랜드)와 한 조를 이루어 오전 7시18분 10번홀에서 티오프한다.
 총상금 10억원에 우승 상금 2억원이 걸린 신한동해오픈은 29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의 짝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런던올림픽 금을 향하여
 12년 런던 올림픽 멀리뛰기 기대주인 영국의 J.J 제게데가 28일 런던에서 진행된 자동차 프로모션 행사에서 3대의 차를 뛰어 넘고 있다.
 연합뉴스

<p>아이나비 만도네비 모비스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차종 17만원 ⇒ 12만원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p>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전차종가능</p>	<p>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사크안테나</p> <p>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p> <p>아이나비 클래식 Real HD 블랙박스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Real HD 1채널 8기가 28만원 ⇒ 22만원 ▶ 파워세이프 별도 2만원</p> <p>▶ 1채널=전방카메라 ▶ 2채널=전방+후방카메라</p> <p>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p> <p>사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사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p>	<p>도난경보기 이지카 스타터버튼</p> <p>참고 추가부품(음선) 차량은 금액이 추가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25500 25만원 ▶ E1 7만원 ▶ E770B 40만원 ▶ E7 37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Z620 10~14만원 ▶ E7 17만원 <p>임동 자동차거리 증권사거리(20번진)</p>
<p>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p> <p>한국카렌드가 하는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마센팅, 3M코팅, 모비스센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일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지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캐시러 일체 <p>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p>		